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식생활영역에서 가사노동 상품대체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효정* · 김미리**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00년 8월 23일 접수)

Market goods substitution of housework and the determinants on it in the domain of food: Focused on the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Hyochung Kim* and Meera Kim**

Dept. of Family & Consumer Science, Inje University*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ugust 23, 200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levels of market goods substitution of housework and find out the determinants on it in the domain of food among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9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in Pusan and Kyungnam province,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equencies, percentiles, Cronbach's alpha,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In the convenience foods, frozen foods had the highest substitution level, whereas prepared stew had the lowest. The substitution level of Korean traditional storage foods was the middle. And in dining-out service, the substitution level was mostly high: the level of delivery service was higher than that of dining-out. Compared to the previous research, these results showed that market goods substitution tended to increase, and its level in the domain of food will promote continually over tim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substitution level of convenience food were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occupation, the existence of elderly/disabled person in the family, sex-role attitude, and weekly hours at home-based work. The substitution level of Korean traditional storage foods was influenced by sex-role attitude, occupation, educa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the existence of elderly/disabled person in the family.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substitution level of dining-out service were weekly hours at home-based work,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occupation, monthly household income, education, and sex-role attitude.

Key words: home-based worker, market goods substitution of housework

I. 서론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은 사회·경제적인 발전단

계에 따라 그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가사노동도 그 내용이나 범위가 변화하게 된다. 즉, 과거에

⁺ The authors wish to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made in the program year of 1998.

가정은 인간생활의 모든 기능을 수행했으나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상품생산의 영역이 확대되고 상품이 가정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게 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가사노동이 이들 상품에 의해 대체되거나 경감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이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나 용역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을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라고 한다^{1)·2)}. 한편, 여성 노동력 수요의 증가,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현저하게 증가하여 1996년 조사에 의하면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시장노동 진출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내재하고 있어 남녀간의 역할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도 남편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수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취업 기혼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병행에 따른 이중부담을 갖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취업 기혼여성의 이중부담은 한 역할의 수행이 다른 역할의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둘 이상의 압박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일어나는 역할갈등 뿐만 아니라, 시장노동 참여와 가사노동의 전담에서 오는 신체적·정신적인 부담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취업 기혼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이중책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최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즉, 재택근무는 가정과 직장이라는 양립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혼여성들에게 가정생산 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을 같은 공간에서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혼여성에게 큰 잇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재택근무 성격상 가사일과 작업일의 경계가 모호하여 근무자들이 가사일로 인한 작업의 중단 및 시간부족 등을 경험하고 있어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간절약형 재화나 용역을 통한 가사노동의 대체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재택근무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상품대체의 수준을 비교하거나 가사노동 상품대체를 시간관리 전략 중의 하나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가사노동의 실태를 살펴볼 때, 대부분의 주부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주생활이나 의생활에 비해 상품대체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식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재택근무자 가정에서 가사노동의 상품대체 정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새로운 고용방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재택근무자의 식생활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가사노동의 수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가정생활의 방향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가사노동의 상품대체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정 내에서 행해지던 생산이 가정에서 분리되어 사회적 노동으로 전환되었고,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가사노동도 사회적 노동의 산물로 대체되고 있다.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Reid(1934)⁵⁾의 가계생산에 대한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id에 의하면 가사노동 대신에 가계생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가족원에 의해 그리고 가족원을 위해 수행되는 무보수의 활동으로서,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함으로써 또는 소득, 시장조건, 개인의 취향 등과 같은 제반상황이 허용된다면 용역을 고용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는 시장을 통해 대체가능한 활동이 가정 내에서 가족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계생산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이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고 사회적 생산과정에 편입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⁶⁾.

1960년대 Becker⁷⁾는 가계를 기본단위로 하여 가족원의 시간이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에 배분되고, 비시장노동에 배분된 시간과 시장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구입한 상품이 결합되어 효용의 직접적인 원천이 되는 가계상품(household commodities)을 생산한다고 보는 가계생산이론(Household Production Theory)을 발표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희소한 자원이고 시간 사용은 개인이나 가계에 대한 시간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데, 시장생산에 참여하는 사람은 비시장생산에 시간을 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시간 가치의 증가는 재화의 생산방법에 영향을 주어 희소한 시간을 재화로 대체하고 따라서 편의식품의 사용으로 요리시간을 덜 소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⁷⁾.

식생활영역에서의 상품대체 수준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외식의 이용은 식생활영역 중에서 대체이용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의 연구에서는 1개월에 1-2회 이상 가족외식이나 주문음식 배달서비스

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약 40% 정도이었으나^{1), 8)·9)}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냉동식품이나 레포르트 식품 등은 이미 1980년대부터 대체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연주, 문숙재(1987)⁹⁾의 연구에서는 냉동만두의 이용이 68.5%, 레포르트 식품 이용이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전 조리식품의 대체수준을 보면 김치의 경우 송주은, 한재숙(1995)¹¹⁾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3.1%만이 정기적으로 김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대체수준을 보이고 있다. 장류는 식생활의 다른 영역에 비해 가사노동 대체수준은 낮은 편인데, 1983년에 행해진 강정옥¹²⁾의 연구에서 된장구매는 8.2%, 고추장구매는 5.6%이었으나, 1991년의 이은주¹³⁾ 연구에서는 전문직 취업주부의 경우 된장과 고추장 구매는 모두 26.3%로 나타나서 장류의 가사노동 대체정도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재택근무자가 아닌 전업주부와 직장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식생활영역에서의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연령^{2), 14)}, 교육수준^{14)·16)}, 소득^{1), 14), 17)}, 직업지위¹⁸⁾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고,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편의식품과 외식의 소비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지위에 있어서 고소득 전문직 주부일 경우 편의가공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택근무와 재택근무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문화와 사회구조가 단순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아 가족원들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활동이 가족생활의 공간인 가정을 기반으로 수행되어 생산단위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라 가정의 기능은 변화하기 시작하여 생산기능과 소비기능이 분리되면서 가정은 생산의 주체보다는 소비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사회로의 진행과 함께 가정과 일터가 다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결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재택근무는 Toffler(1980)¹⁹⁾가 「제3의 물결」에서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발전된 기술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거나 고용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현재의 추세를 보면 재택근무자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Toffler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취득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home-based work, at-home income generation, flexiplace, work-at-home, piecework, homework, telecommuting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재택근무, 재택노동, 원격근무, 가내근로, SOHO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재택근무에 관한 외국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Horvath(1986)²⁰⁾는 재택근무를 소득을 창출하는 가사노동과 서로 상호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재정적 측면에서 가정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Pratt(1987)²¹⁾에 의하면 재택근무란 “가정내에서 또는 가정을 근거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Christensen(1988)²²⁾은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고용지위와 상관없이 가정내에서 행해지는 특종유급의 노동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것과 상호교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행해진 재택근무에 관한 대규모 연구였던 NE-167 프로젝트에 의하면 재택근무를 “1년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6시간, 또는 계절적 노동인 경우 일년에 적어도 312시간을 가정내에서 또는 가정으로부터 행하는 유급노동”⁴⁾으로 규정짓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박명희, 박미혜(1997)²³⁾는 재택근무를 “가정내에서 행하는 유급의 소득취득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택근무자는 이와 같은 재택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Horvath(1986)²⁰⁾는 가정에서 그들의 주요 업무를 적어도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을 재택근무자로 보고 있다. Kraut(1988)²⁴⁾는 재택근무자를 구별하는데 있어 중요한 4가지 차원으로 1) 가정에서 일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의 양, 2) 그 일이 근로자의 1차적인 직업의 일부로서 행해지는가의 여부, 3) 그 일이 가정내에서 또는 가정을 근거로 행해지는가의 여부, 4) 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가족기업의 노동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제안하였다. 미국의 1990년도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자료를 이용하여 직장근무자와 재택근무자의 소득차이를 연구한 김효정(1996)²⁵⁾의 연구에서는 작업장소의 이동수단에 따라 직장근무자와 재택근무자를 구분하였는데, 만약 “집에서 일을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재택근무자로 분류하고 있다. 박명희, 박미혜(1997)²³⁾는 “가정내 또는 가정의 인접건물을 기반으로 해서 가사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을 같은 공간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재택근무자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재택근무와 재택근무자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학자마다 연구목적과 연구범위가 다르기 때문

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비록 사용되는 용어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가정내에서 또는 가정으로부터 수행되는 유급의 노동을 재택근무로, 그리고 이와 같은 재택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재택근무자로 지칭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재택근무와 재택근무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된 업무 또는 제1차적인 업무를 자택 또는 자택을 근거로 하여 행하는 소득 창출 활동을 재택근무라고 정의하며, 이와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재택근무자로 지칭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식생활영역에서의 가사노동 상품대체 수준 및 영향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 및 경남에 거주하는 여성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임의 표집과 눈덩이 표집(snow sampling)을 통해서 수집되었고, 본조사에 앞서 재택근무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 6월15일부터 2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일부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1999년 9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250부이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기재라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응답만을 선택하여 169부가 최종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지는 식생활영역에서의 가사노동 상품대체 정도를 묻는 문항, 성역할태도에 관한 문항, 그리고 조사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식생활영역에서의 가사노동 상품대체 정도는 편의식품 이용, 저장식품 이용, 외식 서비스 이용으로 구분하였는데, 편의식품 이용은 밀반찬류, 즉석반찬류, 통조림류, 냉동식품, 찌개거리, 레포르트식품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상품화된 장류는 저장식품 이용으로, 외식과 배달서비스는 외식서비스 이용으로 각각 포함시켰다. 이들 각각의 영역에 대해 '이용 안함'에 1점, '년 1, 2회 이용'에 2점, '월 1, 2회 이용'에 3점, '주 1회 이용'에 4점, '주 2회 이상 이용'에 5점을 주는 Likert 척도²⁶⁾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성역할태도 척도는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해야 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는 직업 또는 사회 활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아내의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남편은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해 부인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아내는 비록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집안 살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부인은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주부는 경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직업을 가져야 한다', '부인이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그 남편은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장에서의 작업수행 능력이 뒤떨어진다', '직장에서 여자를 상사로 모시는 것이 남자상사를 모시는 것보다 어렵다', '여성은 남성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뒤떨어진다',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여성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 '여성은 이성적인 토론보다는 가벼운 대화를 더 좋아한다', '남성은 여성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여성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여성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남성을 앞지를 수 없다', '여성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남편이 성공하도록 도와야 한다'의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5점까지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17개 문항의 합계점수가 적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그리고 합계점수가 많을수록 근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3. 자료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에 있는 성역할태도 척도의 신뢰도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가사노동 상품대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그리고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으로 보았을 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재택근무자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Category	Frequency(%)	Summary statistics	
Age	20-29 years old	6(3.5)	Min.	28.00
	30-39 years old	114(67.5)	Max.	61.00
	40-49 years old	38(22.5)	Mean	37.21
	50 year old or more	11(6.5)	Standard deviation	6.94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81(47.9)	-	-
	Beyond high school	88(52.1)	-	-
Number of family members	1 person	4(2.4)	Min.	1.00
	2 persons	12(7.1)	Max.	6.00
	3 persons	54(32.0)	Mean	3.56
	4 persons	91(53.8)	Standard deviation	.91
	5 persons or more	8(4.7)	-	-
Occupation	Professional	98(58.0)	-	-
	Clerical	31(18.3)	-	-
	Sale, service, manufacturer, & laborer	40(23.7)	-	-
Hours at work (per week)	8 hours and below	11(6.5)	Min.	4.00
	9-16 hours	15(8.9)	Max.	84.00
	17-24 hours	54(31.9)	Mean	34.62
	25-32 hours	12(7.1)	Standard deviation	21.47
	33-40 hours	13(7.7)	-	-
	41-48 hours	13(7.7)	-	-
	49-56 hours	30(17.8)	-	-
	57 hours or more	21(12.4)	-	-
Monthly family income (Won)	under 1,000,000	4(2.4)	Min.	600,000.00
	1,000,000-1,499,999	20(11.8)	Max.	5,000,000.00
	1,500,000-1,999,999	25(14.8)	Mean	2,314,082.84
	2,000,000-2,499,999	41(24.3)	Standard deviation	924,372.64
	2,500,000-2,999,999	50(29.6)	-	-
	3,000,000-3,499,999	12(7.1)	-	-
	3,500,000-3,999,999	10(5.9)	-	-
	4,000,000 or more	7(4.1)	-	-
Existence of children of 6 years or under	yes	11(6.5)	-	-
	no	158(93.5)	-	-
Existence of elders/disability within the family	yes	42(24.9)	-	-
	no	127(75.1)	-	-
Sex role orientation	-	-	Min.	20.00
	-	-	Max.	61.00
	-	-	Mean	45.52
	-	-	Standard deviation	8.24
	-	-	Cronbach's alpha	.82

비율이 52.1%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재택근무자의 비율보다 높았다. 가족수는 4명으로 구성된 가정이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전문, 관리직 종사자

가 다른 직업에 비해 많이 표집되었다. 근무시간은 1주일 동안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17시간-24시간 이하가 31.9%로 가장 많았다. 월가계소득의 평균은 250

만원-300만원 미만, 200만원-250만원 미만순으로 많았으며, 이들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54%를 차지하였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비율은 6.5%, 그리고 가정 내에서 돌봐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비율은 24.9%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20점과 61점이었으며, 평균은 45.52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역할태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는 .82로 나타나서 비교적 신뢰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식생활영역에서 가사노동 상품대체의 정도

식생활영역에서 가사노동 상품대체의 정도를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편의식품 이용의 경우 냉동식품, 통조림류, 밀반찬류 순으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가사노동 대체이용 정도가 높은 반면, 쪄개거리는 다른 편의식품에 비해 대체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석반찬류의 이용 수준도 대체로 낮아 응답자의 42.6%가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식품은 가정에서의 식사준비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시간절약재화로 특히 냉동식품의 상품대체 수준이 많은 것은 대부

분 냉동식품이 일회 사용을 위한 편의식품으로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가정에서 만들기 어렵거나 만들 수 없었던 식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쪄개거리의 이용 정도가 낮은 것은 다른 식품에 비해 상품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다른 식품에 비해 부패 속도가 빨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저장식품의 경우에는 대체 수준이 중간정도로 나타났는데 '년 1, 2회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12.4%는 상품화된 저장식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류는 식사 때마다 조리하는 식품이 아님을 감안할 때 저장식품이 편의식품에 비해 대체 수준이 낮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선행연구¹²⁾⁻¹³⁾와 비교해 볼 때 저장식품의 대체 수준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류가 필수 재료로, 주부의 제조기술이나 시간부족으로 가정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대체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이라 할 수 있는 장류를 구매하는 경향이 과거에 비해 높다는 것은 가사노동 수행양식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식서비스 이용의 경우 외식과 배달서비스의 대체

<Table 2> The level of market goods substitution of housework in the domain of food

Market goods substitution	Never used	1-2 times per year	1-2 times per month	1 time per week	over 2 times per week	Mean* ±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Frequency(%)	
Use of convenience foods						
Side dishes(dried side dishes, jangachi, jeotkal, etc.)	35(20.7)	36(21.3)	61(36.1)	0(.0)	37(21.9)	2.81 ± 1.38
Instant side dishes(japchae, grill fish, salad, etc.)	72(42.6)	44(26.0)	16(9.5)	31(18.3)	6(3.6)	2.14 ± 1.25
Cans(fish can, corn can, etc.)	37(21.9)	4(2.4)	86(50.9)	29(17.2)	13(7.7)	2.86 ± 1.17
Frozen foods(frozen dumplings, frozen pizza, etc.)	8(4.7)	32(18.9)	79(46.7)	20(11.8)	30(17.8)	3.19 ± 1.09
Prepared stew	107(63.3)	39(23.1)	16(9.5)	6(3.6)	1(.6)	1.56 ± .99
Retort foods(instant soup, gruel, etc.)	52(30.8)	22(13.0)	71(42.0)	12(7.1)	12(7.1)	2.47 ± 1.20
Use of Korean traditional storage foods						
Market soysauce, soybean paste, and red pepper paste	21(12.4)	72(42.6)	50(29.6)	12(7.1)	14(8.3)	2.56 ± 1.07
Use of dining-out service						
Dining-out	0(.0)	38(22.5)	117(69.2)	14(8.3)	0(.0)	2.86 ± .54
Delivery service	0(.0)	25(14.8)	120(71.0)	20(11.8)	4(2.4)	3.02 ± .60

* Each item was scored by Likert scale of five response categories(1=never used, 2=1-2 times per year, 3=1-2 times per month, 4=1 time per week, 5=over 2 times per week)

수준 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약 70%가 월 1, 2회 정도는 외식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외식에 비해 배달서비스의 대체 수준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식 자체가 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택근무자에게는 외식이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외식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원이 함께 모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외식보다는 배달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식생활영역에서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Table 3>은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식생활영역에서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직업, 근무시간, 월가계소득,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노인/장애인 유무, 성역할태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중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관련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²⁷⁾,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4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교육수준(고졸이하=0, 대졸이상=1), 직업(전문직=0, 사무직=1, 판매, 서비스, 생산, 노무직=2), 6세 이하의 자녀 유무(없음=0, 있음=1), 노인/장애인 유무(없음=0, 있음=1)는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편의식품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수, 직업(사무직), 노인/장애인의 유무, 성역할태도, 근무시간, 직업(판매, 서비스, 생산, 노무직)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3%로 나타났다. 즉, 가족수가 많거나 가정 내 돌봐야 할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여성 재택근무자가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거나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이 길 때 편의식품을 많이 이용하였다. 그리고 재택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편의식품의 이용 정도가 많았으며, 판매, 서비스, 생산,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편의식품의 이용 정도는 낮았다.

저장식품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역할태도, 직업(판매, 서비스, 생산, 노무직), 교육수준, 월가계소득, 가족수, 직업(사무직), 노인/장애인의 유무 등이었고, 40%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즉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거나, 교육수준이 높으며 월가계 소득이 많거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market goods substitution of housework in the domain of food

Variable	Use of convenience foods			Use of Korean traditional storage foods			Use of dining-out service		
	b	β	t-value	b	β	t-value	b	β	t-value
Age	.046	.072	1.027	-.009	-.061	-.781	.015	.138	1.953
Educational level ^{a)}	-.347	-.039	-.450	.823	.386	-3.970***	.439	.290	3.321**
Number of family members	3.278	.664	8.489***	.270	.228	2.592*	.284	.339	4.283***
Occupation ^{a)}									
Professional vs. Clerical	5.561	.483	5.159***	.620	.225	2.136*	.633	.324	3.422**
Professional vs. Sale, service, manufacturer, & laborer	-2.089	-.199	-2.315*	1.115	.445	4.590***	-.589	-.332	-3.806***
Hours at work	.052	.248	3.449***	.006	.114	1.408	.017	.493	6.772***
Monthly family income	2.705E-07	.056	.718	4.054E-07	.351	3.996***	2.600E-07	.317	4.018***
Existence of children of 6 years or under ^{a)}	.977	.095	1.363	-.049	-.020	-.254	-.213	-.122	-1.728
Existence of elders/disability within the family ^{a)}	-6.241	-.346	-4.818***	-.836	-.194	-2.395*	.351	.115	1.579
Sex role orientation	.140	.258	3.963***	.073	.566	7.712***	.015	.164	2.494*
Constant	25.963			9.160			5.770		
Adjusted R ²	.531			.404			.520		
F	20.025***			12.406***			19.198***		

*p<.05 **p<.01 ***p<.001

a) Dummy variable

나 가정 내에 돌보아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추장이나 된장 등의 저장식품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사무직, 판매, 서비스, 생산, 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저장식품을 많이 이용하였다.

한편 외식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근무시간, 가족수, 직업(판매, 서비스, 생산, 노무직), 직업(사무직), 월가계 소득, 교육수준, 성역할태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2%이었다. 즉, 근무시간이 길고 가족수가 많으며, 월가계 소득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외식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는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외식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판매, 서비스, 생산, 노무직 종사자는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외식서비스를 적게 이용하였다.

식생활영역에서의 가사노동 대체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가족수, 직업, 성역할태도는 3가지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가족수가 많은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가족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취업에 따른 가사노동의 시간적인 부족을 시장에 나와 있는 재화나 용역을 통해 대체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대체이용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경우, 가사노동은 주부의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의식을 고수하고 있어 시장의 재화나 용역을 통해 대체하려는 경향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저장식품의 이용과 외식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¹⁴⁾⁻¹⁶⁾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교육수준과 장류나 외식 등의 상품대체 수준이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을 통해 가사노동을 간소화하려는 욕구가 크거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상품으로 대체함으로써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고 기회비용이 높은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새로운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장식품이나 외식서비스의 상품대체 정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계소득이 높을 때 식생활의 상품대체를 위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금전자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편의식품 이용 및 외식서비

스 이용에 있어서는 근무시간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Becker⁷⁾의 시간배분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취업으로 인한 시간부족을 해결하고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재화나 유급의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함으로써 가사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식생활영역에서의 가사노동 상품대체 정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부산 및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정도를 살펴보면 편의식품 이용의 경우 냉동식품, 통조림류, 밀반찬류 순으로 대체정도가 높은 반면, 찌개거리는 다른 편의식품에 비해 대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식품의 경우에는 년 1, 2회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12.4%는 상품화된 저장식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서비스 이용의 경우 외식과 배달서비스의 대체수준 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약 70%가 월 1, 2회 정도는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편의식품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수, 직업(사무직), 노인/장애인의 유무, 성역할태도, 근무시간, 직업(판매, 서비스, 생산, 노무직) 순으로 나타났으며, 저장식품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역할태도, 직업(판매, 서비스, 생산, 노무직), 교육수준, 월가계 소득, 가족수, 직업(사무직), 노인/장애인의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식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근무시간, 가족수, 직업(판매, 서비스, 생산, 노무직), 직업(사무직), 월가계 소득, 교육수준, 성역할태도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택근무는 가정에서 가정일과 사회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잇점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가사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자는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근무자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이중역할부담 및 시간부족현상을 가져와 재택근무자의 전반적인 생활

의 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노동 경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이며, 가사노동의 시장대체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사노동 중에서 주부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식생활영역에서의 시간절약제화 및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은 주부가 손수 만들지 않더라도 풍성하고 질 좋은 식단을 마련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 시간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혼여성이 가정에서 직업과 관련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한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여성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의 이해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너무 편의주의에 치우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시간과 금전의 합리적인 자원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월가계 소득이 많을수록 시장대체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사노동의 시장대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취업으로 인해 가계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상품대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대체로 금전적인 이유로 취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부의 취업이 반드시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를 촉진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재택근무자에게 있어서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를 통한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대체상품의 가격인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식품의 선택은 가족원의 건강이나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식품생산자들은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 식생활의 시장대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과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지닌 시장재가 계속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전업주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세 집단에서 가사노동 대체수준 및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 후 이들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어 식생활영역에서의 가사노동 시장대체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Lee KY. A study on the commodity substitution of housework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87
- 2) Koo HR. The market goods substitution of housework and the determinants on it,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9
- 3)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997 Women's annual report, 1997
- 4) Stafford K, Winter M, Duncan K, Genalo MA. Studying at-home income generation: Issues and metho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2): 139-158, 1992
- 5) Reid M.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John Wiley & Sons, New York, 1934
- 6) Kim OS, Lee KY, Choi ES. Family resource managemen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1997
- 7) Becker GS. A theory of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1965
- 8) Rhee KC, Rhee EY, Lee KY, Hwang IK, Kim MJ, Kim YO. A study on the consumer behavior in the industrial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7(2): 115-132, 1989
- 9) Chung YJ, Moon SJ. The study on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KHMA*, 5(1): 121-143, 1987
- 10) Cho SE. A study on the time management strategies of housewive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1
- 11) Song JE, Han JS. A survey on perception and purchase about marketed Kimchi of housewives in Daegu a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4): 121-128, 1995
- 12) Kang JO. Survey of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1983
- 13) Lee EJ. A study on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and its related variable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1
- 14) Joung SH. A study on the market substitutes for housework in the United States, *KHMA*, 11(1): 22-34, 1993
- 15) Moon SJ, Jeong JY.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task services area and the satisfaction with i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9(3): 131-150, 1991

- 16) Lee JH. A study on factors in the purchase of and the satisfaction with services related to the household work in the urban family, Chungang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1
- 17) Oh KH. Home manager's time use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ChungJoo c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3(3): 74-87, 1995
- 18) Lee SM. Time pressure perceived by housewife and homework performanc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 19) Toffler A. The third wave, Morrow, New York, 1980
- 20) Horvath FW. Work at home: Finding from CPS, Monthly Labor Review, 109(11): 31-35, 1986
- 21) Pratt JH. Methodological problems in surveying the home-based workforc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1: 49-60, 1987
- 22) Christensen KE. The new era of home-based work: Directions and policies, Westview, Boulder, 1988
- 23) Park MH, Park MH. A study on home-based work and its effects on family life management, KHMA, 15(3): 1-12, 1997
- 24) Kraut RE. Homework: What is it and who does it? In Christensen KE, ed, The new era of home-based work: Directions and policies, Westview, Boulder, 1988
- 25) Kim HC. A study for the factors affecting income among home-based workers in the U.S., Inje Journal, 12(2): 685-717, 1996
- 26) Chae SL. Research methods for social science research, 2nd ed, Hakhyun-Sa, Seoul, 1996
- 27) Neter J, Wasserman W, Kutner MH. Applied linear regression models, Irwin, Boston, 1989